광남일보

조간 제7959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음력 9월 18일)

민주당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은

다자대결땐 권리당원 투표로 '컷오프'

6인 이상이면 3명씩 나눠 조별 다득점자로 최종 경선
중앙당, 기초단체장 심사…내란 저지 공로 15% 가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지방선거 후보자 경선과 관련해 다자대결의 경우 권리당원 경선을 거쳐 후보를 압축하거나 조별 경선을 치르는 룰을 마련 중이다.

또 기존에 시도당이 해오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중앙당이 맡는 방안과, 시도당이 선거구의 10%를 선택해 중앙당에 전략공천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전략'을 지난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내년 지방선거 당 공천 전략과 룰 운용 방안이 담긴 이 보고서는 이르면 오는 12일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존 지방선거 룰과 크게 다른 부분은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이다.

다자대결의 경우 후보자가 4~5인이면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거쳐 2인 또는 3인으로 압축해 최종 경선을 치른다.

6인 이상이면 3명씩 조별로 후보를 나눠 예비경선(권리당원 100%)을 치러 각 조별 다득점자를 가린 후 최종 경선을 시행한다.

최종 경선은 당규에 따라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를 통해 공천자를 확정한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일부 지역에 선호투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호투표는 투표자 1인마다 1순위, 2순위, 3순위 후보를 직접 표기하고, 1순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과반이 나올 때까지 2순위, 3순위 득표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4년 전 지방선거 경선에서 선호투표를 시행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결선 투표의 경우 후보들 간 합종연횡으로 1위와 2위의 득점이 바뀔 수 있지만, 선호투표는 1차 경선에서 득표수가 많은 1위 후보자가 과반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천 심사 항목은 후보의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의정활동 능력, 당선가능성, 면접 등 6개 항목으로 지난 2024년 지방선거 때와 비슷하다.

다만 기존 시도당이 해오던 기초단체장 후보 자격심사를 중앙당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천 심사에서는 개별 후보자별 가점과 감점 적용에서 일부 다른 항목이 눈에 띈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 예술날개 페스티벌' 강기정 광주시장이 6일 오후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2025 예술날개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작품을 둘러본 뒤 장애 예술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형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실시되는 예술날개 페스티벌은 7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로비에서 전시된다. 사진제공=광주시

알림

제17회 지방자치경영대상·광역의회 의정대상

종합대상 광주 서구·북구·광산구 전남 강진·무안·영광군

김태균 도의회 의장 의정대상 종합대상…총 12명 영예
시상식 26일 오후 2시 염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 1층

광남일보가 주최·주관하는 '제17회 광주·전남지방자치경영대상'·'제6회 광 역의회의정대상' 심사에서 광주 서구·북구·광산구와 전남 강진·무안·영광군이 '지방자치경영대상' 부문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6회째를 맞는 '광역의회 의정대상' 부문에서는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종합대상을, 광주시의회 강수훈·심철의·안평환·이귀순 의원과 전남도의회 김화신·류기준·박경미·신의준·이현창·최병용·최정훈 의원이 대상을 받게 됐다.

광남일보는 지난 3일 오후 2시 본사 1층 MVG라운지에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7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단체와 '제6회 광역의회 의정대상' 수상의원을 최종 확정했다.

심사 결과 광주 서구·북구·광산구와 전남 강진·무안·영광군이 응모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배점을 받아 공동으로 지방자치경영대상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광역의회 의정대상 종합대상은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에게로 돌아갔다. 또 광주시의회 강수훈·심철의·안평환·이귀순 의원과 전남도의회 김화신·류기준·박경미·신의준·이현창·최병용·최정훈 의원 등은 대상을 각각 수상한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과 6회째를 맞는 '광역의회 의정대상'은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 그리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단체와 의원을 선정하는 행사로 광주·전남의 자치단체와 광역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이 행사는 호남지역 최고권위의 풀뿌리 정책 경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상식은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염주체육관 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정준호 '서남권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수도권 초집중 깨고 국가균형발전 새시대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6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하나의 초광역 단위로 묶는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서남권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서남권 메가시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지방은 더 이상 단일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광주전남이 초광역 단위로 힘을 합쳐 서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공식 설치 근거 △특별지자체 의회 구성 및 단체장 선출 규정 △국무총리 소속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 △교통·물류·신산업·인재양성 등 국가사무 이양 가능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우선 지원 등을 담았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도심융합특구' 기업 유치 본격화

'1호 기업' 씨젠의료재단과 업무협약…용지 분양우선권 부여
9917㎡ 부지에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검사·진단시설 건립

광주시가 상무지구 일원 85만㎡에 산업·주거·문화를 결합한 고밀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광주 도심융합특구'에 첫 기업을 유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재)씨젠의료재단과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박창수 씨젠의료재단 광주호남검사센터 대표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씨젠의료재단은 도심융합특구 내 9917㎡ 규모 부지에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검사·진단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부지 우선 입주권 부여와 함께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개발부담금 감면 △신속 인허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맞춤형 투자상담·보조금 연계 등 전방위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도심융합특구는 2021년 착수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광주시의 대형 도시재편 사업이다.

총 사업비 1조5790억원(개발 6140억원·연계 5790억원·지원 3860억원)이 투입되며, 서구 치평동·마륵동 일대에 산업·연구·주거·상업·문화·공공 기능이 집적된 직주락 복합도시가 들어선다.

특구 개발과 맞물린 핵심 연계사업도 진행 중이다.

광주형 평생주택, 김대중컨벤션센터(KDJ) 제2전시장, 광주시 의료원 건립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의료·바이오와 미래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청년 인재와 기업이 공존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